

# ML 선수·감독 활약한 스타... KIA 새바람 분다



## 첫 외국인 사령탑 매트 윌리엄스 선임

메이저리그 선수로 17시즌

1866경기 378홈런 타율 0.268

올스타 5회·3루수 골든글러브 4회  
김병현의 동료로 한국 팬들에 익숙

워싱턴 등서 9년간 지도자로 활약

2014~15년 감독으로 승률 0.552

데이터 분석력·전문성 등 좋은 점수  
ML식 굵은 야구+세밀함 '기대'

"선수들 장점 이끌어 내겠다" 포부

위기의 '호랑이 군단'이 외국인 감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15일 마침내 KIA 타이거즈의 신임 감독이 결정됐다. KIA는 이날 매트 윌리엄스(Matthew Derrick Williams·54)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작전 코치를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 타이틀을 차지한 윌리엄스 감독은 국내 팬에게 잘 알려진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뒀던 윌리엄스 감독은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애리조나에서 1866경기 출장했으며, 378홈런, 1218타점 타율 0.268을 기록했다. 5차례나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뽑혔고, 3루수로서 4차례 골든글러브와 실버슬러거도 수상했다.

그는 'BK' 김병현의 동료로 한국 야구팬들에게 친숙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주전 3루수 겸 4번 타자로 활약하며 김병현과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지도자로서도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

2010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한 윌리엄스 감독은 워싱턴 내셔널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등 메이저리그에서 9년간 지도자로 활약했다. 특히 2014~2015시즌에는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을 맡아, 2104년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도 수상했다. 감독으로서 2년간 179승 145패 승률 0.552를 기록했다.

KIA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포지션 전문성 강화 ▲프로 선수로서 의사 함양 ▲팀워크 증진 등 구단의 방향성을 실현할 책임자로 윌리엄스 감독을 선택했다.

김응용 감독을 중심으로 '해태 왕조'로 군림했던 타이거즈는 KIA로 간판을 바꾼 뒤 김성한, 유남호, 서정환, 조범현, 선동열, 김기태 감독으로 팀을 꾸렸다.

하지만 타이거즈 출신 김성한, 유남호, 서정환 감독은 미숙한 선수단 운영과 혹사 논란 속에 미래를 만들지 못했다. '레전드' 선동열 감독은 3년 간 가를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퇴장했다.

외부 지도자로 팀을 맡았던 조범현 감독과 김기태 감독은 각각 2009년과 2017년 통합 우승을 이끌었지만 우승의 영광은 짧았다. 우승 이후 선수단 재정비에 실패했고, 외부 목소리에 흔들리면서 왕조 재건의 기회를 놓친 두 '우승 감독'은 자진사퇴로 쓸쓸히 퇴장했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타이거즈만의 팀 컬러를 만들어야 했던 구단의 역할도 부족했다. 사령탑에 따라 팀은 요동쳤고, 실패의 책임은 감독의 몫이 됐다.

장기적으로 감당을 만들어가려는 KIA는 외국인 감독으로 새 판을 짜게 됐다.

선수들은 모두 '신인' 입장이 돼서 새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야수진의 '세대교체' 문제에 직면한 KIA는 새로운 경쟁 구도 속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됐다. 빅리그식 선 굵은 야구 속에 데이터를 활용한 세밀한 승부도 KIA가 기대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야구 문화 속에서 낯선 선수들로 2020시즌 밀그램을 그려야 하는 만큼 윌리엄스 감독의 결

심은 빨라질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17일 한국에 입국해 18일 마무라캠프가 진행되는 합평 챔피언스필드로 달려가 선수단과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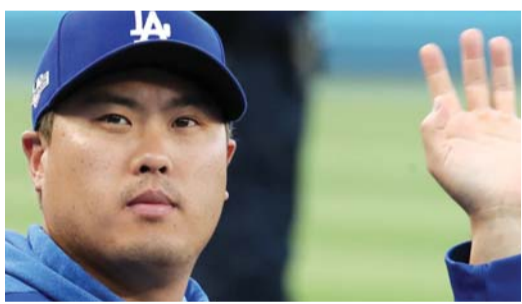
윌리엄스 신임 감독은 "명문인 KIA 타이거즈의 감독을 맡게 돼 영광이다. 한국 팬을 만나는 생각에 설렌다. 또한 열정적인 타이거즈 팬들과 빨리 만나 함께 호흡하고 싶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 발전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과 코치는 선수수범 해야하고, 선수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메이저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팀에 접목해, KIA 타이거즈가 꾸준한 감당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선수단의 특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박흥식 감독 대행에게 2020시즌 퓨처스 지휘봉을 맡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올해 재기상 후보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주관하는 올해의 재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류현진이 포함된 2019시즌 재기상 후보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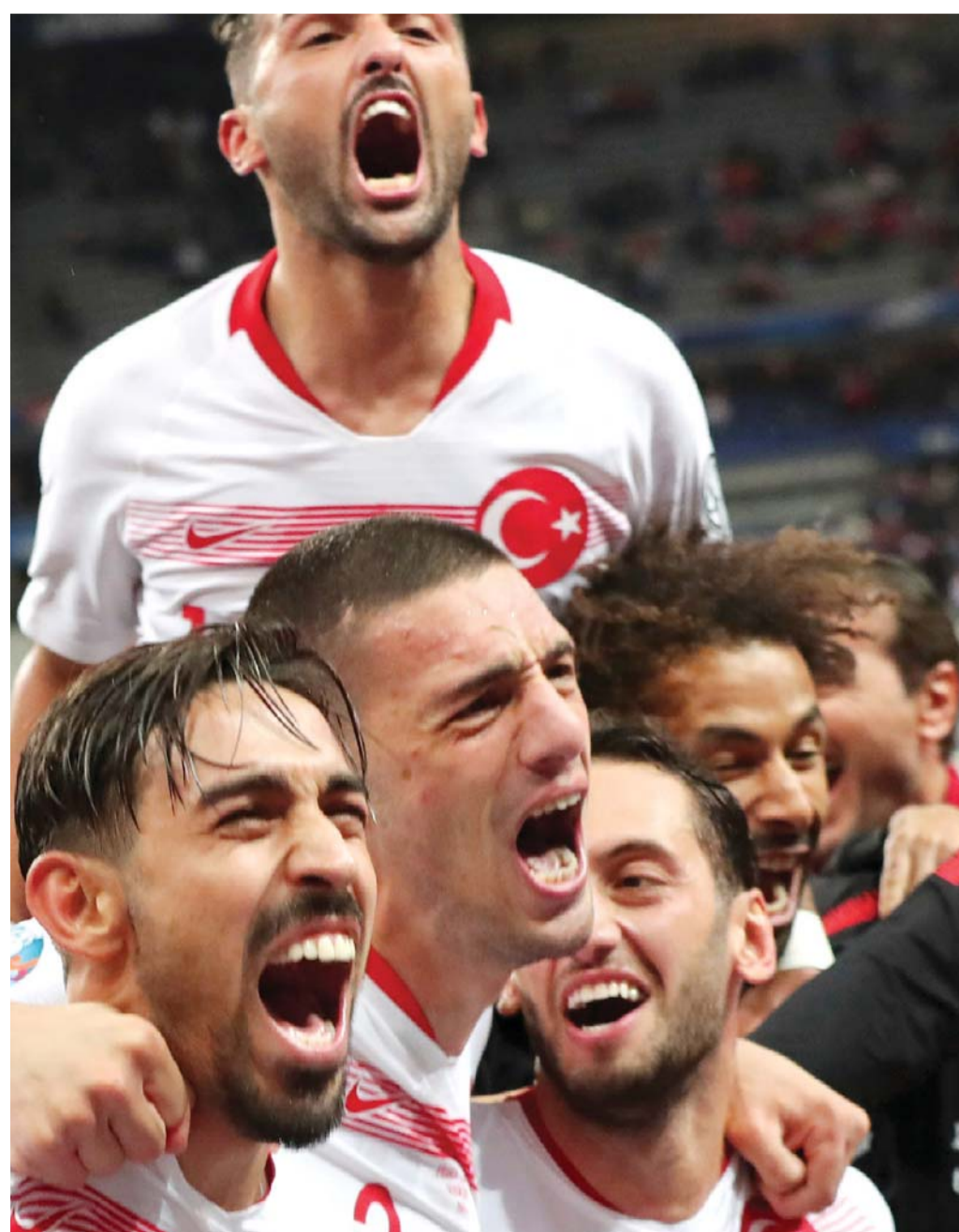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6년 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한국 출신 류현진은 올 시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개막전 선발, 올스타전 선발을 맡았고, 31이닝 무실점 행진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류현진은 5월에 5승 무패 평균자책점 0.59를 기록했으며,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0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부연했다.

애들랜트 브레이브스의 내야수 조시 도널드슨(33·타율 0.259, 37홈런, 94타점), 신시내티 레즈의 우완투수 소니 그레이(29·11승 8패 평균자책점 2.87)도 내셔널리그 재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아메리칸리그에선 헨터 펜스(36·텍사스 레인저스), 호르헤 솔레르(27·캔자스시티 로열스), 루카스 지울리토(25·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재기상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재기상은 현역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2만달러를 본인이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투표는 9월 중순에 이뤄졌으며, 수상자는 22일에 발표한다. /연합뉴스



"기분 짱이야~"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와 터키 유로 2020 예선 H조 경기 중 터키선수들이 골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 베트남축구협 "박항서 감독과 재계약 할 것"

베트남축구협회(VFF)가 박항서 축구 대표팀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15일 온라인 매체 '징'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 카인 하이 VFF 회장은 전날 "박항서 감독과 반드시 재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회장은 "우리는 박 감독이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기가 끝날 때마다 박 감독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커진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VFF와 박 감독이 오는 11월 말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SEA) 게임에 앞서 3년간 재계약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레 카인 하이 VFF 사무총장은 "재계약 협상 진행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없다"면서도 "양측

이 조만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축구협회와 A대표팀 및 U-23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2020년 1월까지 계약했다.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의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포츠큐프 우승을 달성하는 등 계속해서 역사를 다시 썼다. 또 지난 1월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는 지난 9월 태국과 비긴 뒤 지난 10일 말레이시아를 1-0으로 꺾었다. 박항서호는 15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MLB 코치, 한 라운드서 두 번 출인원

6700만분의 1 확률

미국프로야구(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에서 위기에 직면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행운이 찾아올까.

'컨트롤의 마법사' 그레그 매덕스의 형인 마이크 매덕스 세인트루이스 투수코치가 평생에 한 번도 어렵다는 골프 출인원을 하루에만 두 번이나 했다. 세인트루이스는 홈에서 열린 NLCS 1~2차전을 모두 워싱턴 내셔널스에 내주고 3~5차전이 열리는 워싱턴 D.C. 원정을 떠났다.

매덕스 코치는 15일 3차전을 앞두고 오전에 워싱턴 코치 재직 시절 지인들과 함께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육해군 골프클럽을 찾아 골프를 즐겼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155야드짜리 3번 홀(파3)과 142야드짜리 13번 홀(파3)에서 한번씩 출인원을 작성했다. 첫 번째 출인원은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두 번째 출인원은 8번 아이언으로 달성했다. 18홀을 도는 한 번의 라운드에서 두 번이나 출인원을 치는 건 6700만분의 1 확률이라고 한다. '미국출인원등록'에 따르면, 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세 번밖에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다.

매덕스 코치는 하루에만 개인 통산 5, 6번째 출인원을 기록했다. 매덕스 코치는 전년 9개 홀에서 이븐파, 후반 9개 홀에서 1오버파를 쳐 1오버파 72타의 준수한 성적으로 라운드를 마쳤다. 그러나 매덕스 코치의 엄청난 행운에도 세인트루이스는 3차전에서 워싱턴에 1-8로 졌다. /연합뉴스